



Global Goings-on

미 국

**건보개혁 한 발짝 내딛다.
그러나 비용이 얼마나 들지는
묻지 말라
미 상원재무위, 마침내 건강보험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다**

“역사가 요구할 때는, 역사에 순응하는 것이 순리이다.” 이 말은 10월 13일(현지시간) 올림피아 스노우 상원위원이 상원 재무위원회에서 오랫동안 계류된 건강보험 법안에 찬반 양 진영 모두가 얻고자 고군분투 했던 자신의 표를 찬성 진영에 던지기 직전에 한 말이다. 이번 주에 있었던 재무위에서의 투표는 스노우 상원의 표를 제외하곤 철저히 당파적이었다. 13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하고 9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했다. 그러나 이번 투표는 투표결과가 보여주는 것보다는 더 치열한 접전이었는데 이는 상당수의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이 법안이 정부주도의 “공공보험”을 포함하지 않은 데 화가 나 마

지막 순간까지 갈팡질팡했기 때문이다.

결국 민주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비록 불완전 하지만 진보진영의 목표에 가까이 다가섰기 때문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 법안이 달성할 수 있는 목표 중 하나는 건강보험 가입자 비율을 현재 85%에서 10년 안에 94%까지 끌어올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보험회사들이 고객들의 “기존 건강상태”나 평생 보험비용을 훨씬 초과하는 보험비 지출이 불가피한 질병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막을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법안은 이 목표를 새로운 규제, 세제, 그리고 보조금 지급의 조합을 통해 성취하려 한다. 모든 미국인들은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경제적 빈곤자들에게는 이를 위해 보조금이 지급될 것이다. 보험시장이 재조성되어 현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 영세 기업, 값비싼 개인보험 가입자가 적정한 가격에 적절한 보험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초당적 기관인 미 국회 예산국은 향후 10년간 법안의 시행으로 들 비용이 8290억 달러일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지지할 수 있는 최대한의 비용인 9000억 달러를 밀도 있는 것이다. 예산국은 가장 비싼 보험사들에게서 세금을 거둬 들이고 노인들을 위한 공공의료보험인 메디케어 예산의 과감한 축소를 통해 정부의 재정적자를 늘이지 않고서도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한다.

법안의 통과는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희소식이다. 상원 재무위원장인 맥스 보커스 상원의원은 스노우 상원의원의 표를 통해 당파적 껍집을 벗겨냈을 뿐 아니라 이미 통과된 다른 네 건강보험 법안들 - 상원 보건위원회를 통과한 법안과 하원 위원회들을 통과한 법안들 - 보다 더 절충된 법안을 만들어 냈다. 상원을 통과한 두 법안들은 하나의 법안으로 조율되어 상원에서 곧 다시 투표를 거치게 되며 그 결과물은 하원을 통과한 법안과 다시 조율되어야 한다. 개혁 지지자들은 보커스 법안이 개혁의 기본틀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상원 다수당 대표인 해리 라이드 상원의원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이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미 모든 계획을 준비해 놓은 상태이다. 이들이 부딪힐 어려움 중 하나는 재무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오레곤의 론 와이든 상원의원이 제기할 의견으로 그는 고용인이 제공하는 건강 보험을 선호하게 하는 세제의 왜곡을 개혁하려는 데 심혈을 기울여 왔다. (가장 비싼 건강 보험에 세금을 더 부과하는 방법은 론 와이든 상원의원이 제기한 이와 같은 개혁을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보커스 상원의원은 와

이든 씨의 표를 얻기 위해 통과된 법안의 수정을 돕기로 했다.

또 다른 큰 장애는 좌익 세력이 이제는 공공보험을 덧붙이려 할 것이라는 점이다. 주정부가 공공보험을 채택할 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지는 안이 온건한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지지를 얻기 시작했다. 펠로시 상원의원도 하원에서는 어떤 형태든 법안에는 공공보험의 성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가올 조정과정에 우려를 표명하며 오른 해치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제 추락할 일만 남았군요”라고 말했다.

물론 이런 어두운 전망을 모두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MIT 경제학자인 조나단 그루버는 새 법안이 상원보건위원회에서 통과된 다소 관대한 법안과 합병되면 다소 이득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보커스의 법안은 보조금과 관련하여서는 너무 인색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한 벌금에 있어서는 너무 관대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의 접근은 향후 10년간 법안으로 소요될 비용을 9000억 달러 이하로 유지할 것이지만 전국민 보험가입이라는 목표를 무마시킬 위험이 있다.

보험회사들은 이에 대해 추한 홍보용 소란을 일으켰다. 그들의 수확은 교묘했지만 그루버 씨는 보험회사들의 불평에 정당한 면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보커스 법안은 보험회사들이 사람에 따라 가입을 막을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그와 같은 전국민 가입을 부추길만한 채찍도 당근

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보험회사들이 역 선택에 노출되도록 하는데, 다시 말해, 젊고 건강한 (다시 말하면 값싼) 고객들은 그들이 병들 때까지 보험가입을 회피하다가 그들이 병들면 보험회사들로 그들을 가입시키도록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소 불완전한 이 법안의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비용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이 법안은 의료비 상승을 몰고 가는 요인들을 거의 건드리지 않고 있다. 국회예산국의 국장인 더글라스 에펠도프씨는 초당적 정책 단체인 앵겔버그 센터에서 발간된 보고서를 지적하면서 두드러지게 높은 의료비의 성장을 보이는 지역에 대해서는 메디케어 지급의 갭신 회수를 줄이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보험관련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개혁과 메드팩트의 지급 확장, 메디케어 정책을 결정하는 초당적 패널을 구성할 것도 제안했다.

법안과 관련된 비용은 다음 두 가지 문제로 인해 현재 홍보되는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이 들게 될 것이다. 하나는 빈약한 법안 실행 계획인데 이로 인해 향후 몇 년간 매년 들게 될 총 비용이 명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메디케어의 지불비용을 줄여 비용을 절감하려는 발상이다. 보수주의 진영의 두뇌 집단인 헤리티지 재단의 스투어트 버틀러 씨는 “이 법안은 경험보다는 희망으로 예산을 구성하려는 사람들의 승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조롱했다.

2009년 10월 15일 / Economist
〈원문링크: <http://www.economist.com/>

[research/articlesBySubject/displaystory.cfm?subjectid=348945&story_id=14652483](http://www.economist.com/research/articlesBySubject/displaystory.cfm?subjectid=348945&story_id=14652483)

아프리카

콩고의 하반신 마비 악단 버려진 자들의 자장가 콩고 장애인 하층민들의 소리를 들어보라

콩고민주공화국의 산만하게 퍼져가고 있는 광활한 수도인 킨샤사(KINSHASA)에 사는 장애인들이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는 것은 딱 두 가지이다. 하나는 콩고강을 건너 작은 콩고공화국(콩고민주공화국보다 덜 민주적일지도 모른다)의 수도인 브라자빌(Brazzaville)로 향하는 페리 승선비의 절반이고 다른 하나는 몇몇 빈약한 동물들로 이루어진 킨샤사의 낡은 동물원 무료입장이다. 절름거리거나 휠체어를 의지해 페리에 승선할 수만 있다면 그래도 싸구려 옷이나 담배, 술 등을 파는 일종의 마피아와 같은 갱 집단에서 활동할 수 있을 만큼 운이 좋다고 해야 할 것이다. 아니면 적어도 공원을 돌아다닐 수는 있다. 그런데 바로 이 공원에서 네 명의 하반신 마비 가수들과 입양된 길거리 아이 그리고 소수의 반주자들이 Staff Benda Bilili라는 밴드를 결성했다.

“정상인 음악가들과 함께 노래하려고 해 봤지만 실패했어요. 그들은 우리와 함께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끼리 했죠.” Theo Nsituvuidi가 말했다. 4년 전 이들은 킨샤사의 고급 레스토랑 주차장에서 부유한 고객들이 나가는 길에 동전 몇 푼이라도 던져줄 것을 바라며 연주를 시작했다.

양상한 다리의 소아마비 환자들인 이 밴드는 집에서 만든 기타와 줄의 일부가 강통에 팽팽하게 걸려 있는 이상하게 생긴 한 줄 하프를 연주한다. 리드 드러머는 샌들로 플라스틱 의자를 두드린다. 올해 초 “Tres, Tres Fort”란 제목으로 출시된 Benda 밴드의 첫 음반은 발랄한 메들리이다. 어떤 가사들은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백신 예방을 맞도록 권하고 다른 가사들은 킨샤사의 3만 노숙자들의 애환을 노래한다. 대부분은 강한 자립심을 가르치고 있다.

문자적으로는 “감춘 것을 보여봐”라는 뜻을 갖고 있는 Staff Benda Bilili는 유럽 음반차트에서 순위에 들기 시작했다. 이 달 Benda는 7주간의 유럽 투어를 시작한다. 아직 큰 돈을 번 것은 아니지만 밴드에서 기타를 맡고 있는 Coco Ngambali는 자신의 낡은 3륜 오토바이를 새 것으로 교체했다.

착취자인 Mobutu Sese Seko의 지난 32년간의 통치 아래에서 콩고 사람들은 냉소적으로 제 15장으로 알려진 불문헌법을 인용하곤 했다. “Debrouillez-vous pour vivre”로 그 뜻은 “살려면 진정해라”이다. 새로운 헌법은 무상 교육, 인권, 평등권을 보장한다. 그러나 UN의 추측에 의하면 콩고의 연간 인구당 보건분야 지출은 여전

히 세계 최하이다. 인구 8백만에서 천만이 살고 있는 킨샤사의 낡은 오두막 동네에서는 이미 가족간 도움을 주는 체계는 붕괴되었다. 소아마비 예방접종의 부족으로 인해 엄청난 수의 하반신 마비 하층민들이 형성되었으며 이들은 손으로 조립한 3륜 오토바이를 타고(이 것도 형편이 되어야 된다) 반짝이는 신형 세단들 사이에서 에어컨 바람을 맞는 엘리트들에게 돈을 구걸한다.

이들의 복지는 거의 전적으로 몇몇 구호단체들에게 달려 있으며 이 단체들은 매우 일부만 도움 수 밖에 없다. 미국과 영국에 기반을 둔 자선단체인 Stand Proud는 킨샤사에 있는 100명 남짓의 소아마비 희생자들을 돕고 있다. Benda는 프랑스의 영화제작자인 Renaud Baret와 Florent de la Tullaye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수 천명의 다른 고통 받고 있는 이들에게 미래는 그리 밝지 못하다.

Oct 1st 2009 Economist

〈원문링크: http://www.economist.com/research/articlesBySubject/displaystory.cfm?subjectid=348945&story_id=14564920#〉

중 국

광견병, 중국인들에게 심각한 위협

광견병 예방 및 치료에 대한 최근 한 보고서에 따르면 광견병 백신 접종의 양으로 미루어 볼 때 중국에서는 매년 동물의 공격을 받는 사람들의 수가 적어도 4천만에 이른다.

보건부가 발간한 이 보고서에서는 최근 몇 년간 사람들의 부상 수가 증가한 것을 고양이와 개의 수가 증가한 것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 2004년 이래 매년 2,400건 이상의 광견병 발병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이 수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인도 다음이다. 보고서는 대부분의 발병 사례들이 중국 남부와 동부 지방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했다.

지난 5년간 광견병 사례의 약 60.85%가 광서, 광둥, 구주, 후난, 쓰촨성에서 발생했다. 광견병 발병 사례가 드물던 지역들도 그 수의 증가를 보이기 시작했다. 중국 중부 지방의 헤난 성에서는 2000년에 딱 한 건이던 광견병 발병 사례가 2007년에는 196건으로 급상승했다.

광견병은 신경계에 심각한 증상을 유발하는 치명적인 질병이다. 세계보건기구는 해마다 55,000명 이상이 광견병으로 사망하고 있으며 이 중 95%가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에서 발병한다고 보고 있다.

October 5, 2009

〈원문링크: http://www.chinadaily.com.cn/china/2009-10/05/content_8764492.htm〉